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철회하라"

"전북환경청의 재검토 결정 환영"

"지리산 보호 앞장서야"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북환경운동연합, 지리산 지키기 연석회의,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 남원 대책위원회, 전북도의회 오은미·오현숙 도의원, 사회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 폐기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지리산 지키기 연석회의,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 남원 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전북도의원들이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을 공식적으로 반대하며, 전북지방환경청의 '부동의(재검토)'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7일 오전 10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북환경운동연합, 지리산 지키기 연석회의,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 남원 대책위원회, 전북도의회 오은미·오현숙 도의원, 사회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의 완전한 폐기를 촉구했다.

전북환경청은 지난 11일, 남원시가 재신청한 '지리산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산악열차) 시범 사업'에 대해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 '부동의(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이는 생태계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호하고,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날 기자회견은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모두 발언한 오은미 전북도의원은 "전북지방환경청의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지리산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연단에 오른 오현숙 전북도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 민간사업자가 지리산을 개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정현숙 공동대표 등은 "남원시는 산악열차 사업을 일부 구간(1km)만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3.22km 전체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이러한 편법적인 시도는 쪼개기 꼼수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북환경연합에서는 "이번 결정이 지리산 개발을 막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국립공원과 보호지역 내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법과 자연공원법을 개정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산악열차 설치를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지리산 지키기 연석회의,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 남원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리산은 국립공원 1호이자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지역으로,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한다"며 "남원시는 산악열차 사업을 완전히 폐기하고, 지리산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 사업은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일대에서 추진됐으나, 전북지방환경청의 '부동의(재검토)' 결정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만호 기자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 밝혀라"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창원지검, 尹 부부 개입 여부 중앙지검에 미뤄… 국힘, 특검법 국회 통과 협조를"

더민주전북혁신회의(상임대표 강충상)는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의 빠른 소환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충상 상임대표는 "17일 창원지검이 발표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며,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인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는 포함되지 않은 채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창원지검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그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 개입한 사건 등 굵직한 정치적 사건들은 수사 결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하며, "명태균은 지난해 12월 3일 구속되었고, 검찰은 뒤 이어 그의 활동 내력이 담긴 황금폰을 입수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창원지검이 두 달 전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증거를 완전히 확보하고도, 포렌식 작업에 시간이 걸린다면서 조사를 미루다가 이제야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한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강 상임대표는 "이는 결과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만 벌어준 것으로서,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고 말하며 "이 사건이 특검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는 야당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강 상임대표는 "중앙지검에 촉구한다."며, "지난 두 달간 명태균의 황금폰 포렌식 작업이 끝난 만큼, 조속히 김건희를 소환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하고, 명태균이 개입한 각종 선거에 대한 의혹도 남김없이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아울러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법 발의에 대해 '정치 탄압' 운운하며 시간을 끌지 말고, 특검법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이것 만이 국민의힘이 윤석열-김건희와의 고리를 끊고 정당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브로커 명태균 관련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17일 밝힌 바 있다. /이만호 기자

"청년이 이끄는 새로운 나라, 전북서 시작"

민주 도당 청년위 발대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청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4시 전주대학교 예술관 JJ아트홀에서 발대식을 열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청년위원회(위원장 박경태)는 지난 15일 오후 4시 전주대학교 예술관 JJ아트홀에서 청년 당원 300여 명을 비롯해 당내외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당 청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청년 조직 강화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면 축사를 전했으며, 이원택 도당위원장(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 신영대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갑),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임실·장수·순창)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우범기 전주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윤영숙 전북특별자치도당 여성위원장, 전영배 전북특별자치도당 노인위원장, 이정찬 전북특별자치도당 대학생위원장, 이정자 전북특별자치도당 다문화위원장 등 당내외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재명 당대표는 서면축사를 통해 "불법계엄과 내란 사태에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청년들의 결연한 의지 덕분이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이 좌절하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2024년 내란사태, 위헌·위법 비상계엄, 항공참사 등으로 대한민국이 극도로 혼란스러웠지만, 청년들이 헌법 가치를 지키는 데 앞장섰다"라며 "오늘 발대식을 계기로 전북특별자치도당 청년위원회가 더 큰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박경태 청년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내란사태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이 극우세력을 선동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에도, 청년들은 거리에서 응원봉을 흔들며 민주주의를 평화적으로 지켜냈다"며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당 청년위원회는 청년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제안하고, 청년들이 주역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박경태 위원장은 특히 주거·일자리·교육·복지 등 청년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과 청년 정치인 육성, SNS·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네트워크 강화 등을 구체적 과제로 제시했다.

발대식의 하이라이트로 진행된 결의문 낭독에서는 청년들이 정책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세대 간 갈등 해소, 당내외 청년 연대 강화 등을 주요 목표로 선언했다. 이어 탄핵 촉구 피켓 퍼포먼스를 통해 내란사태를 초래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윤석열에 대한 강력한 탄핵 의지를 천명했으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청년들의 결연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경태 청년위원장은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전북 특유의 단결력과 청년들의 참신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청년위원회는 향후 도당 내 '당원존'을 활용해 청년 당원들과 활발한 교류를 도모하고, 정책 발굴·토론회를 정례화해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일궈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평화·인권 위해 힘쓰신 생애 기억할 것"

민주 도당,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선생 별세에 애도 표명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에서는 1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선생이 16일 별세로 성명서를 내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슬지 도당 수석대변인(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선생님께서 2025년 2월 16일 97세를 일기로 영면에 드셨다."고 밝히며, "길원옥 선생님은 1928년 평안북도 화천에서 태어나 공장에 취직시켜 준다는 말에 속아 만주의 전쟁터로 끌려가 끔찍한 피해를 겪으셨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고인은 '피해자'로 남기를 거부하고 평화와 정의를 위한 인권운동가로 활발히 활동하셨으며,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를 방문해 일제가 벌인 전시 성폭력 참상을 생생히 증언했고, 수요시위를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각성과 일본의 참회를 촉구하셨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위안부 피해자이자 평화·인권 운동가로 고단한 길을 걸었던 길원옥 선생님의 생애를 기억하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선생님에 대한 진정한 추모는 사실에 대한 정직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의 역사적 책임을 묻는 것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한 일제 강점기 피해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끝으로 "다시 한번 길원옥 선생님의 평안을 빕니다."라고 말하며, 고인의 헌신적인 여성 인권운동 활동에 대해 추모했다.

한편, 길원옥 할머니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해방 후 여성 인권운동가의 길을 걸어왔으며, 16일 97세를 일기로 별세하심에 따라 고인의 빈소는 인천에 차려졌고 창원에도 분향소가 설치됐다.

2017년 2월에는 고인의 활발한 인권운동 활동을 기리고자 '길원옥 여성평화상'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정당혁신·정권교체"… 더민주군산혁신회의 결성

읍면동 혁신회의 구성 주력

지난달 12일 더민주전북혁신회의 2기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도내 시군 단위 혁신회의 구성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전북혁신회의는 지난 14일 오후 군산시에서 방용승 전국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와 황진 김용만 여석경 전북공동대표 등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혁신회의 결성을 위한 모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강태창 전북특별자치도의원과 유철규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공동대표로 선출하고, 혁신위원 모집에 박차를 가하기로 다짐했다.

특히 군산시 내 27개 읍면동 별 혁신회의 구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방용승 공동상임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앞으로 환황해권 허브도시로 거듭날 군산시에서 혁신회의를 결성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군산혁신회의가 도내 1만 혁신위원을 조직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군산=이재춘 기자

도의회 농복환위, 남원의료원 현장의정활동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17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을 찾아가 현지의 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지 의정활동은 지방거점 공공 의료기관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의 운영 현황과 주요 현안 업무를 청취하고 관련 시설을 견학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간담회를 통해 시설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기관 방문을 통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공감하며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승식 농업복지환경위원장은 "필수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와 공공보건 의료지원 기반 확충으로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과 "공공의료원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수 의료진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도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기획행정위, JB지산학협력단 현지의정 나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17일 JB지산학협력단을 방문하여 주요 추진실적 및 중점 추진계획에 대해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활발한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기획행정위원들은 JB지산학협력단 이전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이전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갑질 및 개인 비위 등으로 파면되어 공석인 JB지산학협력단장을 신속히 채용해 조직 안정화와 기관 이전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문안위, 전북문학예술인회관 건립 현장 방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17일 문학예술인회관 건립 현장을 방문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문학예술인회관 건립 사업은 1979년 도지사 관사로 시작된 전북문학관이 시설의 노후화와 좁은 전시 공간으로 활용도가 점차 감소해, 2020년부터 신축계획이 추진됐다. 작년 12월 착공한 문학예술인회관은 총사업비 157억원을 투입해 부지 면적 6,225㎡, 연면적 2,958㎡ 규모로 건립되며, 연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